

# 중국 근현대건축의 개척자, 양정보<sup>1)</sup> 고택 보존

A Pioneer of Chinese Modern Architecture,  
Preservation of Yang Tingbao's Old House



양정보 고가의 외관 전경 (사진 : 張十慶 교수 제공)

필자는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바이두 (Baidu)를 검색하다가 지방신문인 양자만보(揚子晚報) 2012년 8월 4일자 인터넷판 기사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 근현대건축의 설계 및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양정보(楊廷寶, Yang Tingbao, 양팅바오: 1901-1982) 선생의 고택(故宅)이 금년 5월 18일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개월 만에 기념관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보도였다. 양정보 고택은 1992년 이미 시급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성급문물보호단위로서 2011년 9월 23일 남경시 현무구 정부와 친딸 양사영(楊士英) 사이에 기념관 건설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신문 기사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북경 청화대학의 건축과를 만든 양사성 선생과 부인 임취음 선생이 1931년부터 1937년까지 6년간 살았던 북경 총포호동(總布胡同)의 고택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논란 끝에 금년 초 흔적도 없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양정보 고택의 주소는 남경시 현무구 성현가 104호로 자신이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동남대학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1946년 노모와 가족, 보모 등 9명의 식구를 위해 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있던 기존의 낡은 집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벽돌구조의 서양식 2층 주택이다. 대지면적은 1,305㎡, 건평은 232㎡(차고 등 부속건물 포함)

이며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건축 당시 부족한 경비 때문에 외관보다는 기능에 치중하여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평면 배치가 치밀하고 간결한 모습을 지닌다. 그는 집이 완성되고 나자 성현가에 축조한 작은 집이라는 의미로 '성현소축(成賢小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념관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공현장의 기술책임을 맡은 동남대학 건축학원 순경(淳慶) 선생에 따르면 보수의 핵심은 건축품 격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로 지반과 벽체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보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다만 공공위생을 위해 마당의 동남쪽에 화장실이 신축, 추가되었다. 전체 공사비는 예산을 초과하여 모두 2억 1,300만 원(한국 화폐 기준) 정도가 소요되었다. 향후 이 기념관은 양정보 선생의 유품 전시와 더불어 건축전시회나 소규모 전문 강좌를 개최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위에서 바라본 양정보 고가의 전경 (사진: 張十慶 교수 제공)

한 때 남양북량(南楊北梁, 남쪽에는 양정보가 있고, 북쪽에는 양사성이 있다는 의미)이라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양정보와 양사성 두 사람은 중국 건축계의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삶의 터전을 꾸렸던 고택의 운명은 보존과 철거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중국의 역사건축물이 직면한 현주소를 가감 없이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유명 인사들의 고택이 보존과 철거의 운명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건축인의 고택이 거론된 바는 없다. 이제는 그 흔적이라도 찾아서 팻말이라도 붙여 기려봅시다. 그리고 향후 기념할만한 건축인의 고택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싶다. 유명 인사들의 고택은 규모가 크고 특별한 양식을 가진 것도 있지만 대개는 평범한 주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의견에 반발이 심하다. 그러나 집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을 지키



양정보 고가의 거실 내부공간 (사진: 張十慶 교수 제공)

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진자료를 직접 찍어서 보내준 동남대학 건축학원의 張十慶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圖



동남대학에서 만든 양정보 선생의 포스터 (사진: 張十慶 교수 제공)

1) 양정보는 1901년 10월 2일 허남성 남양현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인휘(仁輝), 1921년 청화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여 1924년에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27년 귀국한 뒤 기태공정사(基泰工程司)에서 건축설계 책임자로 근무를 했으며 1940년 국립중앙대학(이하 남경대학, 남경공학원, 동남대학으로 명칭이 바뀜) 건축과 교수로 부임하여 1982년 서거할 때까지 재직했다. 대표작으로는 남경의 중앙체육장, 중앙의원, 중앙연구원, 지질연구소, 북경의 교통은행, 청화대학 도서관 증축, 화평빈관, 심양의 경봉철도 심양역 등이 있다. 참여작품으로는 북경의 인민대회당, 인민영웅기념비, 북경기차역, 북경도서관, 모택동기념당 등을 들 수 있다.